

유아교육의 철학적 기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아교육

Foundation of Philosoph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Ancient Greek and Ro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계영희 Young Hee Kye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 헬레니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한 폴리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체제와 문화, 교육의 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유아교육과 여성교육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조명한다. 나아가 그리스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철학과 사상을 살펴면서 그들의 유아교육은 그리스의 것과 또 우리의 유아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The starting point of education is the ancient Greek philosophy.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Hellenism culture: two famous poleis such as Sparta and Athens. Moreover, we investigate prominent philosopher Plato and Aristotle. In particular, we notice early childhood and female education through Hellenism culture. Finally, we study culture, politics and educations of the ancient Roman in order to compare those of our society.

Keywords: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스파르타(Sparta), 아테네(Athenae), 그리스철학(Greek philosophy),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로마교육(Rome education), 케케로(Cicero),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1 서론

서양문화의 원류로 일컫는 헬레니즘 문명은 기원전 6~4세기경 지중해 연안의 폴리스(polis)를 중심으로 철학, 과학, 수학,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기초를 세우고 독특하게 발달한 것으로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실로 막강하다.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일찍 꽃을 피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헤브라이인들이

*이 연구는 2010년도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조성되었음

MSC: 97D03, 97D20 ZDM: A41

제출일: 2011년 1월 5일 수정일: 201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19일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여기고 신을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로 이해하면서 내세를 추구했다면,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고통에 신을 끌어내려서 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현세의 행복을 추구했다. 즉 그리스인들은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인간의 이성과 개성을 확대시켜나갈 수가 있었다. 둘째, 그리스 문화는 이집트를 비롯하여 바빌로니아 헤브라이 페니키아 페르시아 문화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폭 넓게 흡수하고 모방하면서 학문과 예술, 철학을 구성하여 현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성을 기반으로 한 이와 같은 자유교육은 인간의 지적, 도덕적, 미적 발달의 균형을 추구했다. 셋째, 그리스 문화는 자유 시민 공동체인 폴리스를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을 즐기면서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가치를 추구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과 이상은 반드시 폴리스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폴리스를 개인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수의 구조로 파악하고, 비례와 조화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기하학의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1,000여개의 폴리스마다 아고라(agora)광장의 정치적인 토론은 그 들만의 독특한 민주주의식을 함양시켰으며, 광장의 집회는 인간 존재의 의의와 도덕적 규범, 시민으로서의 의무 등을 인식하게 한 학교의 기능을 했다. 특히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폴리스로서 매우 상반된 유아교육의 면모를 보인다. 물론 상반된 정치체제에 기인한다. 헬레니즘이 야만인을 멸시하고 여성을 혐오했던 비인간적인 노예사회였건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은 교육의 출발점이므로 유아교육의 철학적 기초 역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탐색하여야 한다([1, 3, 15, 19]).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 헬레니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한 폴리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체제와 문화, 교육 또 유아교육과 여성교육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조명한다. 나아가 그리스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철학과 사상을 살피면서 그들의 유아교육은 그리스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2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와 교육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 최강의 스파르타는 인구의 5~10%가 시민계급이었으며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속국민이 된 반자유민과 노예로 구성된 도시국가였다. 자연히 스파르타는 대다수 정복민의 반란을 두려워하면서, 강력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 체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스파르타 인들은 그리스인의 이상인 지혜와 이성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한 신체와 강력한 전투능력을 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파르타 교육의 기초는 기원전 9세기경에 리쿠르고스(Lykurgos)가 제정한 강력한 군국주의 법이다. 군국주의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중요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교육이었다. 교육목적은 국가가 바라는 이상적인 군인의 양성이었으므로 체육과 덕육에 역점을 두었고, 덕육은 강한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용기, 충성, 인내, 희생정신, 명예심이였다. 철저히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700년가량 지속된 호전적인 스파르타 교육은 자연히 문학과 예술, 철학 등 심미적이고 지적인 면은 도외시하였다([1, 9, 15]).

한편, 기원전 6세기 초, 귀족주의 체제였던 아테네는 귀족과 일반 평민의 갈등과 대립이 불거졌을 때 유명한 집정관 솔론(Solon)이 등장을 한다. 그는 기원전 594년, 귀족들의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재산에 따라 평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단행하여 아테네 민주정치 of 초석을 이룬다. 아테네 시민은 시간과 열정을 공공의 일에 헌신하고, 또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월감을 누렸다. 이런 특권층을 뒷받침하는 계층이 곧 상인과 노예계급이었다.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에서 수학과 철학이 발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제도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4세기말, 아테네 인구는 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시민은 10만 명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생산노동을 수행하는 노예와 상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시민은 곧 귀족인 셈이었고, 아테네의 교육은 귀족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 플라톤은 주인에게 노예를 학대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근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다루듯이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다([3, 4, 15, 18]).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는 민주정치 of 꽃을 피우면서 아테네의 보물창고로 부르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찬란한 문화유산을 이룩하였다. 파르테논 신전은 화려하면서 기하학적 비례에 철저히 맞추어서 디자인된 건축물로서 안정감을 준다. 황금비율에 들어맞는 파르테논 신전의 비례는 탁월하며 조각은 특히 아름답다. 벽에 새겨진 조각의 주제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이야기와, 켄타우로스¹⁾, 아마조네스²⁾의 싸움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질서가 혼돈을 물리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비례와 균제, 조화임을 입증하는 건축물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테네는 정신과 육체, 영혼이 조화를 이룬 도덕적 교양인을 이상적인 시민 상으로 추구하면서 인격의 도야에 힘을 썼다. 아테네에서는 모든 일이 시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

1) 켄타우로스: 반인반마의 모습을 지닌 괴물(『그리스 문명의 탄생』 113면)

2) 아마조네스: 흑해 연안에 살았다는 전설적인 여성전사(『그리스 문명의 탄생』 113면)

었으며, 시민의 의사는 연설가들의 웅변술에 좌우되었으므로 민주주의가 발달하였고, 또 소피스트의 급격한 진출로 수사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는 수학과 철학, 논리학의 발달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3, 7, 19, 20])

이러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적인 상황은 교육제도와 방법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2.1 스파르타의 교육

스파르타 교육의 목적은 강건한 신체와 투철한 애국심, 준법정신과 용맹심을 겸비한 무인으로서 자기를 희생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인간양성이었다. 씨름, 창던지기, 뿔뿔기, 말타기, 수영, 활쏘기를 통하여 민첩한 육체를 단련하였으며, 국가가 정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시민이 될 수 없었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당받을 수도 없었다. 스파르타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국립검사장인 렉제(Lechse)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여기서 합격된 아기는 6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고, 병약자나 불구자는 아포테타(Apotheta)라는 깊은 동굴에 버려지거나 노예에게 넘겨졌다. 7세가 되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아들로 공동교육에 입소를 하면서 엄격한 공동훈련으로 강인한 스파르타의 시민으로 양육된다. 20세가 되면 정식군인이 되어 복무하며 전쟁에 참전하고 10년간의 복무를 마쳐 30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완전한 시민권을 얻고 결혼을 하게 된다. ([14, 17])

스파르타의 교육내용은 다른 폴리스에 비하여 신체적 도덕적 훈련을 많이 강조하였으므로 자연히 지적 미적인 면은 도외시되어갔다. 아동기에는 올림픽 경기 5종 종목인 달리기, 높이뛰기, 레슬링, 투창, 원반던지기를 배우면서 군사훈련을 배우고, 청년기가 되면 그 외에 검술, 승마, 수영, 수렵 및 무용을 배운다. 음악은 군대의 사기를 양양하는 교과로 또 국가제전에 필요했으므로 중요시되었다. 군사훈련을 강화할수록 더욱 지적활동은 약화되어갔으며, 지적활동은 최소한의 읽기와 쓰기만을 배우게 되었다. 엄격한 군사훈련으로 인간의 개성과 존엄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으며, 언제든지 필요하면 체벌이 가해졌다. 심지어 매를 맞을 때 움츠리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가장 매를 많이 맞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등 체벌은 체력단련이나 인내력 훈련으로 생각되었다. 결혼은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며, 결혼의 목적은 단지 장차 스파르타를 키질 아이들을 낳는 것이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되었다고 한다.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었던 비인격적인 교육 방법은 구성원의 내적 불만이 쌓이면서 마침내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9, 11, 15]).

2.2 아테네의 교육

아테네의 이오니아 족은 다양한 취미와 우아하고 쾌활한 사교적인 기질을 가진 민족이었다. 특히 자유주의 사상과 독립정신을 존중하고 천재적인 사유와 통찰,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창조력, 탁월한 문학성을 가진 민족으로 그리스를 대표하는 우수한 민족이었다. 아테네 교육의 기초는 기원전 7세기경 솔론(Solon)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였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없음이 명시되었다고 한다. 아테네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원만하고 균형 잡힌 조화로운 인간의 육성이었다. 행동의 사람보다는 지혜의 사람을 강조하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육성이 그 목적이었다. 이는 선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사상과 같은 맥락이다([1, 10, 14]).

아테네는 가정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6세까지 가정교육이 끝나면 7세부터 학교교육이 시작되었다. 7세부터 16세까지는 교복(敎僕, paidagogos)이라는 가정교사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예절과 품행을 교육하면서 학교에 데리고 다녔다. 오전에는 신체단련을 위해 체육학교에서 체육을 배웠으며, 오후에는 사립음악학교에서 음악과 眞·善·美에 관하여, 문법교사에게 3R's(writing, reading, arithmetic)와 詩를 배웠다. 그리스의 유아들도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음악학교가 초기에는 노래와 수금만을 가르쳤으나, 후에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치고,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Hesiodos)의 詩를 가르쳤다. 체조학교는 올림픽 5종 경기(달리기, 투창, 경주, 씨름, 원반던지기)와 전쟁에 필요한 신체훈련과 조화로운 몸을 위해 수영, 권투를 가르쳤다. 16세가 되면 교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교활동을 하면서 소피스트(Sophist)에게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신체단련을 위해서는 공립체육관 김나지움(Gymnasium)에 들어가 2년 동안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체육관의 경비는 국가가 반을 지원하였고, 주된 종목은 승마, 경마, 활쏘기, 투석, 전차경주, 조정 등이었다([1, 6, 15]).

최초의 학교이자 체육관이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Academia)는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립한 학교 리케이온(Lykeion)이 아테네의 지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요람이 되었다. 당시 주요과목으로는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이었으며, 그 외에 물리학, 문학, 수사학, 변론술 등을 배우기도 했다. 18세가 되면 2년간 에페보스에 들어가 아테네 신전에서 선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에 들어간다. 1년을 훈련 받은 후에 국가로부터 창과 방패를 지급받아 변방수비대로 근무를 하면서 실전을 쌓고, 20세가 되면 에페보스에서 제대하여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3, 6, 14]).

2.3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유아교육

스파르타는 아기가 태어나면 10명의 장로가 건강한 아기인지를 렉제(Lechse)라는 국립 검사장에서 건강진단을 한다. 이 때 아기가 튼튼하지, 아년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몸에 포도주를 닿게 하여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면 건강한 아기, 움츠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허약한 아기로 판정을 내렸다. 합격한 아기는 6세까지 부모에게 맡겨져서 양육되고, 병약하고 허약한 아기는 아포테타(Apotheta)라는 깊은 동굴에 버리거나 노예의 가족에게 양육을 부탁하였다. 사내아이는 6세까지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여자아이는 모두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유아교육의 담당자는 유모와 시녀, 어머니였다. 스파르타의 유모는 아테네로 초빙될 정도로 훌륭함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스파르타는 강인한 체력에 기초한 강인한 인간성의 교육이 목표였으므로 어릴 때부터 상체는 나체로 지내면서 얇은 옷을 입었고, 음식은 무슨 음식이든지 익히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서 키웠다. 어린 아이들은 어두운 방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을 훈련받았으며, 고함을 지르거나 우는 것은 부모나 유모의 뜻에 대항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며, 온수욕을 금했고 여자들에게도 살이 보이는 험렁하고 허름한 옷을 입도록 했다. 스파르타나 아테네에서 유아를 꾸짖는 방법은 모두 엄격하였는데 어머니나 유모는 신발을 벗어 유아를 때리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남녀 모두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즉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용감한 군국주의, 국가주의 교육으로 일관되었다. 한편 아테네는 사내아이, 여자아이를 가리지 않고 유모나 어머니의 무릎에서 다정하고 사랑스런 목소리로 그리스 신화를 들으면서, 또 진흙으로 구운 작은 동물, 딸랑이, 팽이, 공, 나무 악기 등 다양한 완구를 가지고 놀면서 자랐다. 어린 아기들은 주로 별거벗은 채 강아지, 오리, 거위, 고양이 등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과 놀면서 양육되었으며 학교 교육은 사내아이만 7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1, 11, 14])

2.4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여성교육

헬레니즘문화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반쪽의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였으므로 여성의 지적교육은 간과되었으며 그리스의 남성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 그리스 대부분 폴리스에서 여자들은 소외된 존재로 여아들은 가정의 울타리에서 격리된 채 가사 이외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유독 스파르타는 다른 폴리스와 달리 여성교육을 매우 강조했다. 스파르타는 여성교육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아이를 생산하려면 어머니인 여성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여자아이들도 사내아이처럼 야외에서 훈련을 받았다. 미래의 어머니 역시 용맹과 강인함을 갖추도록 소녀들도 달리기, 공놀이, 원반던지기, 씨름, 노래, 춤을 배우면서 체력을 향상시켰고,

소년과 마찬가지로 종교행렬이 벌어지면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신교육을 받았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보모나 어머니들은 그리스의 다른 폴리스에 명성을 떨쳤다. 초기에는 강력한 자녀교육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으나, 후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과도한 체벌과 체력단련은 오히려 비인격적인 교육으로 스파르타의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적인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다.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으며, 지적교육이 오히려 여성의 정숙과 덕을 해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주로 가사, 방직, 재봉, 육아에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주로 안방에서 생활을 하여 체격과 체력이 스파르타에 비해 빈약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모든 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찬란했던 아테네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대학자들의 지적, 도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1, 11, 14, 17]).

3 그리스 사상의 대부들

그리스인들은 사물의 근원에 대하여 탐구하여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철학적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만물에서 단일한 요소를 찾아내기 시작한 결과 탈레스는 만물의 근본요소를 ‘물’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정의를 했다. 이처럼 만물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의 구조로 파악한 이가 피타고라스다. 그는 수를 바탕으로 도형을 이해하였고, 나아가 만물을 ‘수의 구조’로 파악했다. 더욱이 영혼을 정화시키려면 수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르치면서 피타고라스학파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공동체에 헌납을 한 뒤 헌신된 자들만 들어가는 모임을 마테마티코이(Mathematikoi)라고 불렀고, 수학과 철학은 배우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주로 영적인 가르침만을 받았던 공동체는 아쿠스마틱스(Akousmatics)라고 불렸다. 그는 비레와 조화만이 영혼을 정화시키고 이론적인 사유와 성찰을 가능케 하여 영혼의 불멸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결과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많은 기여를 했고, 비레와 조화의 사상은 아테네 문화를 이루는 기저가 되었다([3, 8, 9, 20]).

그 후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대 철학자들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철학의 근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주로 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설파하면서 덕(德)이 곧 지(智)라고 주장했다.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감각이 아닌 이성이었다. 그의 사상이자 목적은 청년들의 영혼을 일깨워 인류의 교사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최초의 학교 ‘아카데미아(Academia)’를 설립하여 윤리학, 미학, 정치학, 형이상학, 자연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오늘날까지 철학의 주제를 제공했다. 그의 철학의 키워드, 이데아론은 이 세계를 우리의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상의 세계와 정신의 사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이념의 세계로 나누었다.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즉, 우리가 작도하는 기하의 도형이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며 모든 도형의 원형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논리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대학의 기하학자 유클리드는 이데아 사상에 기초하여 기하학의 체계를 세웠으니 곧 <원론(Elementes)>이다. 플라톤은 여러 가지 이데아 중 최고의 이데아는 선(善)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선하지 않은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진실과 아름다움은 선의 이데아에서 조화롭게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그리스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는 피타고라스의 비례·조화, 소크라테스의 지혜, 플라톤의 진·선·미였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어린이들은 유년시절부터 ‘아름답고 선한 인간’이라는 이상을 지닌 인간으로 교육되고 있었다([3, 6, 15, 17]).

플라톤의 제자로 스승을 뛰어넘어 다방면에 탁월함을 보인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Lykeion)’을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했다. 그는 삼단논법을 비롯하여 논리학, 과학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철학 등에 업적을 남기었으며 유명한 <시학(詩學)>, <윤리학>을 저술했다. 그는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사물의 본질인 형상은 사물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며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는 노예를 자연의 산물로 보았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의 1/2의 존재로 보면서 폄하했던 철학자였다([10, 16]).

3.1 플라톤의 유아교육사상

플라톤(Platon, B.C. 427-347)의 교육이론의 기저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교육의 종합이다. 스파르타는 습관의 훈련, 관습과 법의 존중 등 보수적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아테네는 정치와 학문의 자유, 개성의 존중을 통한 사회의 개선 등 진보적 경향이 강하다. 전자는 국가의 존속에 필요하고, 후자는 국민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므로 플라톤은 스파르타식 훈련과 아테네식의 인격의 원만한 발달을 조화시키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을 잘 교육해야 하며, 시민이 기능한 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사람을 착하게 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주장했다([1, 13]).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위하여 폴리스의 시민을 위한 성인 교육 뿐만 아니라,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유아들을 관찰한 후, 각자의 개성을 발견하고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 형태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인차에 따라

지도법도 달라야 한다는 맞춤교육을 일찍이 주장했다. 또한 가능한 한 일찍부터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 조기교육 예찬론자였다. 어릴 때 훈련해야 희망하는 목표와 목적을 따라 틀과 형이 정해진다고 생각했고, 5세까지 유아기의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이 시기의 경험이 인간 발달에 있어서 20세까지 발달의 절반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아에게는 비속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을 금지시켜야 하고, 극단적인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나 온화한 상태에 이르도록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파르타의 교육관과 매우 대조적이다. ‘놀이’를 인격발전의 맥락에서 바라본 遊戱設은 19세기에 등장을 한다. 이 이론을 자극시킨 촉매는 이미 2,000여 년의 시차를 갖는 플라톤의 교육 철학이다. 플라톤은 놀이에 대해 가치를 두고, 근대 놀이이론의 문제점을 던진 원인제공자였다. 현대적 시점으로, 그의 이론이 특정 직업인 육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종속시켰다는 결점이 있다고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구자적 존재였다. ([1, 5, 10, 18])

그는 유아의 출생부터 17세까지, 아동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신화, 옛날이야기, 시, 음악, 미술, 체육 등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였는데, 신화와 옛날이야기는 순수한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장려하였고,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에서도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방하게 되어 잘못에 너그러워짐을 경고한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아들의 TV만화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플라톤은 문학이 아동의 인격형성에, 음악이 감정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처량한 곡조는 연약함과 게으름을 조장하므로 금지하도록 했고, 현악기와 피리를 금지시켰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구슬픈 곡조는 영혼을 연약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음악교육에서도 당시 그리스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 조화와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멜로디와 리듬을 통해 유아의 난폭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말로 하는 상담보다 음악으로 하는 치료가 더 효과적임을 현재의 시각으로도 인정하는 영역이다 ([5, 17, 18])

더구나 체육교육은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운동을 물론이거니와 휴식과 음식조절, 지나친 양념까지 유의하도록 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 수면, 오락의 규칙성과 적절함을 강조한 그의 교육관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는 지나치게 신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강조했다. 역시 중용과 절제, 조화를 추구했던 그리스적인 가치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는 음악과 체육의 조화에 의한 용감하면서 분별력있는 인간교육을 주장했다. 한편, 플라톤은 서민교육과 귀족교육의 이원화를 주장하였다. 일반 서민층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만, 엘리트층의 자녀들은 장차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인재를 양성해야하므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이기적인 가족주의의 병폐를 한 발 먼저 나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교육의 문제, 지나친 이기적인 열성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볼 때 그의 주장은 현재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16, 17]).

3.2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아교육사상

플라톤이 직관적이고 사변적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경험적이고 논증적이면서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놀이를 유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유아기의 신체적 단련과 놀이의 중요성, 교육환경의 정화 등 유아교육의 문제를 스승인 플라톤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더 나아가 이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부모교육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사회가 나서서 장차 부모가 될 남성과 여성이 우생학(優生學)적으로 최고의 조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국가에 의해 계획된 결혼에 의해 태어난 유아를 국가의 자녀로 잘 양육하려면 먼저 무슨 운동이든지 시켜야하며, 수영과 얇은 옷을 입으라고 장려했다. 또한 그는 유아기 때는 유희가 가장 본성에 적합한 활동이므로 5세까지는 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키지 못하도록 조언했다[16].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희론은 근대 호모 루덴스(Homo Ludens)론에 대응하는 이론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스파르타에서 유아가 우는 것을 철저히 금한 것과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아는 울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금하는 것은 유아의 자연스런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가족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지도층의 자녀와 재산의 공유제를 제시했던 플라톤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부모에게 자녀가 자기만의 것이라는 소유욕을 한편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왜곡될 염려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실현되어야, 후에 규범적인 정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의 유명한 명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가정을 초월하여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9, 15, 16])

그는 유아가 태어나서 최초로 보고 듣는 것에 크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인과 가족의 저속한 화제는 추방해야 되며, 저속하고 비열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은어와 비속어의 사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도 과거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그는 유아교육의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교육이론은 도덕적 습관과 훈련, 이성적 능력의 계발에 초점을 두었고, 플라톤처럼 국가주의적 교육을 주장

하였으며 지식 중심의 귀족주의적인 교육을 주장했다. 서양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념은 실용적인 목적을 떠나 오직 진리 자체를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을 직업준비나 기타 실제적인 사용 목적에 맞추어 추구하는 것은 자유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플라톤 사상은 중세 교부철학에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스콜라 철학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1, 13, 17]).

4 로마의 사상과 문화

로마는 8세기경 이탈리아 반도에 라틴족이 세운 도시국가로 처음에는 왕정이었으나, 반도를 통일하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소아시아를 점령하여 대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로마인들은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창조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나, 선진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모방한 후 융합하여 현실생활에 적용하는데 탁월했다. 따라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세계문화의 원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곧 로마인의 공로였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지적이거나 예술적이지 않았고, 히브리인처럼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뛰어난 조직력을 발휘하고 외래문화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조직하여 그들 자신의 문화로 발전시킨 실용적인 민족이었다([1, 18]).

현실적이었던 로마인은 군사, 정치, 법률, 건축, 토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탁월하여 12동판법을 비롯하여 자연법, 시민법, 만민법 등 우수한 법률체계를 이룩하였다. 사회는 귀족과 자유민, 농노로 구분된 철저한 계급사회였고, 가정은 아버지의 권리를 절대시한 5대부권(五大父權)³⁾에 기초한 강력한 가부장제였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교육을 통해 애국적이고 건실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로마시민이 양성되었다. 로마인은 그리스인처럼 변론을 매우 좋아하여 웅변과 토론, 대화가 중시되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웅변술을 가르쳤다. 퀸틸리아누스와 키케로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웅변가이며 가장 영향력있는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다. 토론과 변론을 좋아하던 그리스인이 논리적인 기하학의 증명을 발전시켰다면, 로마인은 웅변술을 발전시켰다([15, 16]).

3) 5대부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권리, 노예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 자유인끼리의 계약체결과 상호우대의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이주한,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탐구』 141면)

4.1 로마의 교육

전통적으로 로마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교는 중시되지 않았다. 로마 전기의 공화정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500년 동안 안정되게 번영하면서, 교육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가장의 권위아래 철저하게 군인과 시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간으로 기르게 했다. 아버지는 자녀의 도덕적, 신체적 훈련을 책임졌고, 어머니는 유모나 노예에게 맡기는 일이 없었다. 후에 공화정시대가 되자, 종교적 경전과 올바른 인생관, 생활태도의 기초교육을 어머니가 맡으면서 교육의 중심이 어머니로 이전되었지만, 읽기, 쓰기, 셈하기, 법률생활의 지식은 아버지가 맡았으며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1]).

로마의 부인들은 그리스와 대조적으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다. 남성들은 부인을 마트로나(matrona)라고 부르면서 존경하였는데, 일례로 원로원과 민회에서 부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특별석이 따로 마련되었으며, 부인들은 국정의 주요한 의제가 심의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남편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도 했다. 가정에 충실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아끼는 가장을 중심으로 로마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갔다. 가장을 중심으로 신과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경건한 삶은 어린아이들에게 종교심을 갖게 했으며 로마인의 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위대한 전쟁영웅이나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하였고, 경작과 파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였으며, 승마, 수영, 권투, 검술 등 전쟁에 필요한 기술,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문자와 기초적인 법률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버지들은 손수 자녀들을 위해 책을 만들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남편이었다. 여아들은 마트로나(matrona)로 불리는 어머니를 모방하면서 생활교육을 받았다([15, 17]).

다시 말하면 마트로나는 덕망과 존경의 상징인 우아한 여성인 동시에 기초교육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여아들의 역할모델(roll model)이었다. 존경의 상징으로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경부인과 흡사한 모습이다. 이처럼 수준 높은 부모들의 가정교육으로 로마의 국력이 강해져서 고도성장을 이룩하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만다. 훌륭한 아버지와 남편이었던 남성들이 해외파견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안정된 기반이 흔들리고 도덕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19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 아버지들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얻은 외화가 오히려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또 국내로 들어온 외화는 과열된 부동산 투기와 사교육의 열풍을 몰고 온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로마인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자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상류가정에서는 킬로(Chilo)라는 문법교사를 종으로 두고 자녀교육을 시켰으며, 루두스(Ludus)라는 사립 초등학교에서 읽기, 쓰기를 배우도록 했다. 강성했던 로마가

공화정 말기에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듯 교사들의 비교육적 태도가 만연했다. 아이들이 교사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이 내려져서 일례로 아침에 하얀 옷을 입고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는 매를 맞아 피로 얼룩진 옷으로 오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1, 15, 16]).

교육에서 처벌은 필요한 것인가? 금지해야 하는가? 는 오늘날 우리 사회만의 이슈가 아니었다. 로마의 탁월한 웅변가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A.D. 43)와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A.D. 35-100)는 체벌금지를 주장하면서 훌륭한 교사의 본을 보였던 사상가였다.

4.2 키케로의 유아교육사상

그리스 사상의 전달자 키케로는 로마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문장력이 뛰어났다. 그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덕은 로마를 본 받아야하고, 교양은 그리스로부터 배워야 한다” 라고 주장했으며, 수학에서는 논증 기하를 추구했던 그리스와 달리 계산과 측량 같은 실무적인 일에만 국한시켰다. 어린아이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던 시기에 어린이의 유순하고 참된 인간형성을 위하여 자주성이 존중되도록 처벌을 반대하고 시와 음악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도록 했다. 교사의 자격은 주요과목인 시, 음악, 수학, 문학이외에, 수사학, 역사, 법학, 철학의 다섯 과목을 완벽하게 배우도록 했으며, 윤리학, 심리학, 의학, 지리학, 천문학까지 요구했다. 그는 철학적 소양이 있는 로마인이야말로 선한 로마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과 덕을 닦기 위해서는 ‘이성과 웅변’ 을 두 개의 인간형성의 지표로 삼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 수능능력시험으로 치르는 과목과 비교할 때, 수학은 이성과, 언어·외국어는 웅변과 대응시킬 수 있다([15, 16, 17]).

그의 유아교육관의 기초는 성선설로서,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 감사 등에는 애착을 느끼고, 아날 때는 혐오하는 경향의 덕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저서 <웅변가의 교육> 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아이의 가능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새로이 하여 아이의 장래에 올바른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유아가 처음 배우는 언어는 주위사람의 언어를 모방하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는 현명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도 플라톤처럼 놀이 속에서 유아의 재능과 기질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면 학습과 유희를 적절하게 배합하도록 했다.

교육열이 높은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는 당시에 도 하이슈였다. 열등한 교사일수록 체벌을 함부로 하고, 매를 맞는 아이의 공포는 다른 아

이에게도 민감하게 전달되고, 체벌은 아이의 성격을 음울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형성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사의 지도력이 충분하다면 체찍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유아기는 공부를 싫어하지 않도록 아직 본격적인 과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질문에 대답을 잘 했을 때는 칭찬을 하여 기쁨을 주고, 배우는 것을 거부할 때는 다른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가 부러워하게끔 하여 자연스럽게 학습의 동기가 유발되도록 했다. 그의 유아교육론은 루소를 비롯하여 근대 교육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1, 17]).

로마시대 웅변술이 강조되었던 것은 로마의 정치체제가 원인이다. 원로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려면 정책결정권자들의 모임인 원로원에서의 연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평민인 경우 민회에서 연설의 실력이 절대적이므로 탁월한 웅변술이 필요했다. 그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케케로의 교육목적은 선을 가진 인간과 인문주의적 교양을 가진 웅변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웅변술은 학생에게 명예심을 주고 도덕적인 퇴폐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넓은 교양과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웅변가를 양성했건만 로마 후기에는 편협한 언어능력을 가진 출세지향적인 인간을 위한 웅변가 양성으로 전락했다. 교육내용은 철학, 국사, 정치학이며 자연과학은 중요시하지 않았다.([1, 15])

4.3 퀸틸리아누스의 유아교육사상

퀸틸리아누스는 현대유아교육의 백서라고 불리는 그의 저서 <웅변교수론(Institutes of Oratory)>에 유아교육관을 밝히고 있다. 교육목적은 타고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웅변가의 양성이었으며, 어린이 교육은 무엇보다도 신체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시민으로 양육될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론은 키케로와 유사하면서도 개인주의, 세계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체벌반대, 학습자의 개성 중시, 교육에 경쟁의식 도입,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후세 서양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교육으로는 공립학교가 사립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공립학교 확립을 주장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체벌을 금하고, 아동의 특성을 연구하여 개인차를 인정하여 가르치며, 유년기부터 독서를 할 것, 학습에 흥미와 놀이를 사용할 것, 학습에서 경쟁의식을 조성할 것, 교사 선택을 적절히 할 것 등을 강조했다. 교육내용으로는 7세까지 가정교육, 문법학교의 교육, 전문적인 수사학교를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교육은 주로 귀족계급의 자녀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외국어교육으로는 부모에게 모국어인 라틴어보다 먼저 그리스어를 가르쳐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유는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의 것을 계승했으므로 우선 그리스의 교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았

다. 유아기 때부터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중언어 사용을 주장했다. 수사학교에선 음악, 산술, 천문학, 기하, 철학을 가르칠 것을 권했으며, 철학은 수사학의 보조학문으로 변증법, 윤리학, 물리학으로 구분했다. 산술, 천문학, 기하는 웅변가에게 과학적 지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으며, 그의 웅변교육은 르네상스 시기 고전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었다. 그는 조기교육과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칭찬과 사랑, 학생의 경쟁의식을 교육적으로 가치 있게 보았다([1, 6, 14]).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 헬레니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했던 폴리스인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체제와 교육, 을 되돌아보면서 특히 유아교육과 여성교육에 주목하였다. 또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의 대부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아교육관으로 오늘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을 조명하였을 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첫째, 스파르타는 인간을 출생시기부터 국가를 위한 도구로, 또 여성은 국가를 위한 용맹스런 남자를 생산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성차별이 없는 엄격하고 강한 훈련으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였으나 지나치게 잔인한 교육방법과 지적교육의 부재는 스파르타를 몰락하게 하였다.

둘째,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인 아테네는 오히려 스파르타에 비하여 여성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다수 생산계급을 제외한 그리스 남성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시각을 가졌던 사회였다. 이에 여성들은 지적교육과 야외활동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토론과 웅변에 기초한 민주정치는 소피스트의 출현으로 수사학, 변론술, 기하학을 발달시켜 다양한 학문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셋째, 플라톤은 놀이 속에서 유아의 재능을 발견한 후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교육을 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음악교육, 체육교육, 언어생활 그리고 식습관까지 세밀하게 조기교육을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 유아들은 컴퓨터의 발달로 자연친화적인 놀이에 몰입할 여가도 없으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애니메이션은 유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실정임을 반성해야 한다. 또 자기자녀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학부모의 문제를 간파하고 플라톤은 귀족교육과 서민교육의 이원화를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지나친 열성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넷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교육관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학자로,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화제의 추방과 비열한 말을 금하라고 환경의 정화를 주장한 것을 볼 때 요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도를 넘어선 비속어, 은어사용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주요한 사안이다.

그리스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철학과 사상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유아교육과 여성교육은 어떠한지 오늘날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화정 초기에 로마는 가장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교육시켰다. 부모의 경건한 생활은 훌륭한 아버지와 자상한 남편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여성들은 그리스와는 다르게 마트로나(matrona)로 불리면서 존경을 받았다. 마트로나는 여자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역할모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들은 운동선수를, 소녀들은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 여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유관단체가 상을 제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로마가 점차 사치와 향락으로 국민의 도덕적해이가 확산되자, 아이들은 교사와 어른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또 교사들은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어린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을 금지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체벌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체벌금지의 규정을 시달하자, 현장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어 오히려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체벌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성교육이 부재한 우리 사회의 병든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사료된다.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가 바로 교육의 묘약이 아닐까?

셋째,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문화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그리스어를 학습시키려고 가정교사를 둔 것을 볼 때 이중 언어의 부담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외국어 교육에서 시기와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기수, 『교육의 역사와 철학 강의』, 태영출판사, 2009.
2. 김승환 외 16인, 윤기영 · 손영빈 역음 『유아교육사상사』, 양서원, 2010.
3. 김용운 · 김용국, 『수학사대전』, 우성문화사, 1986.
4. 김용운, 수학사학과 수학교육, 한국수학사학회지, 3(1986), No.1, 21-33.
5. 김재희, 『유아이해를 위한 교육철학』, 동문사, 2003.
6. 김종명, 수학사에서 수학의 패러다임 형성과 수학교육관, 한국수학사학회지, 10(1997), No.2, 53-63.
7. 김종명, 한국의 수학교육과정과 수학교육관, 한국수학사학회지, 17(2004), No.2, 33-52.
8. 마저릿 버트하임, 최민홍 옮김, 『피타고라스의 바지』, 사이언스 북스, 1997.

9. 박문환, 수학교육의 철학적 기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9.
10. 박창균, 플라톤주의와 사회구성주의, 한국수학사학회지, 15(2002), No.2, 69-76.
11. 비비안 피닉, 임미경 옮김,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니어 김영사, 2009.
12. 서용순,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두리 미디어, 2010.
13. 성기산, 플라톤의 정치교육론, 교육철학, 34(2008), 169-190.
14. 이선숙 · 양영숙, 『유아교육의 역사와 철학적 이해』, 청목출판사, 2007.
15. 이주한,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탐구』, 창지사, 2008.
16. 조성자, 『유아교육의 역사와 철학적 이해』, 창지사, 2008.
17. 팽영일, 『유아교육의 역사와 사상』, 양서원, 2007.
18. G. L. Dickinson, *The Greek View of Life* / 박만준 이준호 옮김, 『그리스인의 이상과 현실: 서양철학의 뿌리』, 서광사, 1989.
19. Pierre Leveque, 최경란 옮김, 『그리스 문명의 탄생』 시공 디스커버리총서 005, 시공사, 1997.
20. B. Russell, *Wisdom of the West: A Historical Survey of Western Philosophy in its Social and Political Setting*, 이명숙 · 광광제 옮김, 『그림과 함께 보는 서양철학사: 서양의 지혜』, 서광사, 2003.

계영희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sin University
 E-mail: ykkye@kosin.ac.kr